「경영사연구」 제33집 제2호(통권 86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8. 5. 31, pp. 25~59.

논문접수일 : 2018.01.10
최종수정일 : 2018.05.11
게재확정일 : 2018.05.30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역사 연구

김형욱* · 양지연**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난 45년간 진행 된 우리기업의 중동지역 수출, 건설플랜트 수주, 직접투자 진출 역사를 거시적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970~80년대와 2000년대 고유가 시기에는 산유국의 프로젝트 발주량 증가로 우리의 건설플랜트 수주도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우리의 중동지역 대상 상품수출과 건설플랜트 수주는 1990년대의 저유가 시대를 제외하고는 고유가 년대에는 동일한 방향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동지역의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가 관련 기자재의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동지역에서 우리기업의 건설플랜트 수주는 상품수출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진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건설플랜트 발주형태가 기존의 도급방식에서 투자개발형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의 직접투자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상품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현지 영업망 구축 등 현지 시장진출형 직접투자도 200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어〉 중동, 이슬람, 수출, 건설플랜트, 해외직접투자.

Ⅰ. 서 론

중동지역은 지역, 언어, 종교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우리의 해외진출 연구단위 지역으로는 공통적인 지역진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2015년 기준 40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의 8%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 80%, 해외건설 수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1] 중동이란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 aSSIST(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사과정, KOTRA 프로젝트지원실장, hyungwookkim@kotra.or.kr, 제1저자.
**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jiyyang@suwon.ac.kr, 교신저자.

사용되었다. 유럽인들은 자국을 기준으로 거리의 원근을 따져 아시아를 근동, 극동으로 구분했으며, 중동이란 지역은 근동에 해당된다. 그런데 미국이 서양 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유럽인들은 근동이라 부르던 지역을 중동(Middle East)이라 부르게 되었다(홍성민, 1991).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진출현황을 수출액 기준으로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의 중동 수입시장 점유율은 1970년대 0.7%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 1.7%, 1990년대 2.3%, 2000년대 2.9%에서 2010년대 3.4%로 지난 45년 간 지속 증가 추세이나, 1970년대 대비 2010년대 중국은 1.0%에서 7.3%로, 인도는 1.3%에서 3.6%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10.1%에서 3.9%로, 미국은 12.9%에서 7.8%로 감소하였다.[2] 우리나라는 1973년 중동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한 이후 45년이 흘렀으나,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동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3] 6개국, 걸프지역(GCC, 이라크, 이란), UAE, 이집트 등 일부 인기지역·국가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중관, 2015). 둘째, 연구의 범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항만산업, 의료산업, 정부조달, 전력기자재, 이슬람 문화, 이슬람 금융, 이슬람 법률 분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김중관, 2015; 안태건, 2017). 마지막으로 연구의 기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간이 10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중동 진출 전체 기간의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장건·김정명, 2007; 장건, 2011). 우리기업의 진출확대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동지역 거시환경과 함께 지난 45년 간 우리의 중동지역 진출역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해외진출유형은 수출, 국제계약(turn-key 계약 포함),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로 분류하므로(Root, 1987; 강태구, 2003; 이준호, 2005), 중동진출을 상품수출, 건설플랜트 수주, 해외직접투자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 이론, 중동지역의 문화적, 제도적, 지리적, 경제적 진출환경과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고, 지난 45년 간 우리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역사를 진출모드에 따라 상품수출과 건설플랜트 수주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분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동지역(MENA :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을 위치, 경제권, 원유생산 등에 따라 3개 권역 및 독립권역으로 분류[4]

1) 해외건설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종합
2) IMF DOTS 자료분석 결과
3)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걸프협력회의로서 아라비아 만 연안의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5월에 설립한 기구이다.
4) "중동(Middle East)"은 학술용어 보다는 상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며(서재만, 1982), 연구목적,

하여 (1) GCC :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의 만(gulf) 일대를 가리키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2) 마그레브 :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3) 레반트 :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4) 독립권역 : 이란, 이집트, (5) 기타 : 이스라엘, 예멘 등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해외진출, 중동지역의 진출환경을 문화적 환경, 제도적 환경, 지리적 · 경제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Ⅲ장에서는 진출모드별 중동지역 진출동향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어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써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해외진출방식에 관한 기존 연구

기업의 해외진출방식은 해외사업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투입자원의 비중, 위험의 정도에 따라 수출, 계약, 투자로 구분된다(Root, 1987).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해외시장진출 초기단계에서는 시장통제력이 작은 진입방식을 택하여 진출을 시도하나 해외시장진출의 경험을 쌓은 후에는 점차적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진출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한다(Root, 1987; 강호상 · 성용모, 2000). 수출에 의한 진출은 해외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Johanson & Wiedersheim-Paul, 1975; 이장우, 2002). 직접투자 진출은 높은 통제력을 가지고 위험부담도 크나 수출과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턴키프로젝트 등 계약방식의 해외진출은 통제력과 투자자원의 투입이 낮으므로 위험부담도 낮다. 이중 턴키프로젝트는 일명 플랜트 수출(plant export)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식은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생산 공장이나 원자력공장, 공항, 석유시추시설 등과 같은 산업시스템을 발주받아, 이를 설계 · 건설하여 프로젝트를 완공한 다음 발주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국제사업방식이다(강태구, 2003, 72). 이러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방식의 순서를 보면,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과정에서 외국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사

연구자, 연구기관에 따라 포함 지역이 상이하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하는 중동지역(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개념으로 사용된다. 중동지역(MENA)는 이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언어(아랍어), 민족(아랍인), 종교(이슬람)을 공통으로 하고 있으나, 지리적 위치, 경제특성 등에 따라 이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세부 권역별로 분류하여 사용되고 있다.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는 세부 권역을 GCC, 마그레브, 레반트 그리고 KOTRA는 독립권역(이집트, 이란), 기타지역(예멘, 이스라엘)로 구분한다.

한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높은 국가로 점진적으로 진출한다고 한다(Johanson & Wiedersheim-Paul, 1975; 강호상 · 성용모, 2000, 282). 해외시장 진출에 따르는 현지국 시장에 대한 사회 · 문화적 차이가 크거나 정치적 시스템이 다를수록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되므로 직접투자방식보다는 수출방식이 선호된다(Anderson & Gatignon, 1986; 강호상 · 성용모, 2000).

한편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방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략적 적합성(strategic fit) 관점, 제도이론 관점, 심리적 거리 관점에서 살펴본다. 먼저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적합(fit)시키는 것이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Child, 1972; Porter, 1980; 양영수 외, 2017)는 전략적 적합성(strategic fit) 관점에서 기업의 전략적 적합성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Ginsberg & Venkatraman, 1985; Zajac et al., 2000). 이에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전략, 방식과 내용은 이 지역의 환경변화, 즉,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제도이론 관점에서 살펴보면, 해외진출에서 진출대상국을 결정할 때는 진출국의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 불확실성과 위험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본국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진출국의 환경이 상이할수록 해외진출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은 커지게 되고, 지불하는 거래비용, 정보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Delios & Henisz, 2003; North, 1990; Mudambi & Navarra, 2002; 이응석, 2018, 108).

한편 기업의 해외진출 시 본국과 진출대상국 간의 거리감에 따라서 진출전략, 방식과 내용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중 심리적 거리감은 국가 간 투자대상국 선택(Davidson, 1983), 시장진입순서(Benito & Gripsrud, 1992; Erramilli, 1991; 한병섭, 2013)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Zhao et al.(2004)은 심리적 거리 측정을 위해 호프스테드 지수를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 영향의 미묘함과 다양성을 포착하는데 있어 비효과적이라고 보고, 일부 학자들은 심리적 거리감을 보다 자세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Ghemawat(2001)는 글로벌 확장 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하는 거리 개념으로 CAGE(cultural, administrative, geographic and economic) 거리 차원을 제시했다. 문화적, 관리적, 지리적, 경제적 거리 차원이 국제화 기업이 직면하는 심리적 거리감의 하부 구성요소들이다. 관리적 거리 차원은 제도적, 정치적 거리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Root(1987)는 해외진출전략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기업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다(배도순, 1993). 이중 기업 외적 환경은 본국과 현지국의 시장, 생산, 환경요인으로서 기업이 통제하기 힘든 요인이며, 이와 같은 외적요인

들은 진출전략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중 현지국의 기업 환경적 요인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 지리적 거리 그리고 현지국의 경제적 요인, 사회 · 문화적 요인, 정치적 위험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출대상 중동지역의 문화적, 제도적, 지리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외진출 형태인 수출, 건설 플랜트 수주 그리고 직접투자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우리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중동지역 진출환경

1) 문화적 환경

호프스테드(Hofstede, 2005)의 국가 간 문화차원을 활용한 중동지역의 비즈니스문화 환경특성은 다음과 같다(장건 · 김정명, 2007). 권력거리(power distance)에서 중동 국가들은 비교적 권력거리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성향(individualism vs collectivism)에서는 중동지역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권으로 분류된다.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에서 중동지역은 대체적으로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은 편이다. 남성성과 여성성(masculinity vs femininity)에서 중동지역은 남성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은 중동지역을 중국, 일본과 함께 대표적인 고맥락(high context) 문화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랍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고맥락적인 문화 특성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배윤주, 2015). 중동지역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언어는 아랍어, 종교는 이슬람교를 공통으로 하는 문화적 환경이 특징이다. 2010년 기준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16억 1,931만 명으로 이는 세계 인구(69억 명)의 23.4%에 달하며,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83억 명)의 26.4%를 차지할 것이며(Temporal, 2011), 중동의 무슬림은 전체 무슬림 인구의 20% 정도이다. 중동지역은 이슬람이 생활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슬람법(sharia)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일체를 총괄하는 종교적 의무 총체'로서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일까지 코란과 교리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특이한 사회다. 이슬람은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믿는 유일신 종교이다. 이슬람 교리로는 유일신에 대한 신앙 고백, 기도, 자선, 단식, 메카순례 등 다섯 개의 기둥을 주축으로 한다(Temporal, 2011).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생활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에 중동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중동지역은 이슬람을 중심으로 단일공

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종교적 관념이 삶의 가치기준이 되는 이질문화권이다. 우리의 아랍 문화에 대한 이해는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상호신뢰 형성을 통해 중동지역 비즈니스 진출에 기여하게 된다(장건 · 김정명, 2007).

2) 제도적 환경

중동지역 각국의 제도는 서방국가로부터 독립 이후, 왕정, 입헌군주제, 대통령 중심제, 내각책임제 등 다양한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 왔다. 모로코, 요르단과 걸프협력회의(GCC : Gulf Cooperation Council)의 바레인, 쿠웨이트는 입헌군주제, 오만은 세습군주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정교일치를 바탕으로 한 국왕중심제를 견지해 오고 있다. 반면에 UAE, 시리아, 알제리, 예멘, 이란, 이집트는 대통령 중심제를, 튀니지는 이원집정제, 이라크는 내각책임제를 가지는 등 현대 정치체제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문정인 외, 2011).

중동지역은 국가별로 다양한 정치제제를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만은 1970년 이후 장기집권을 유지하는 등 사우디를 비롯한 왕정국가들은 대부분 왕위를 세습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법인 sharia를 국법으로 한 정교일치의 절대군주국으로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하며, 종교 수장을 겸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부의 불균형 분배 문제를 야기 시키며, 보수적인 왕가를 중심으로 한 정국운영이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3) 지리적 · 경제적 환경

중동지역은 권역별로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규모, 경제통합정도, 지리적 위치에 따라 4대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중동지역 전체 인구는 4억 7백만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5.5%를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GCC 6개국이 26,666달러로 가장 높으나, 마그레브 지역은 4,390달러로 가장 낮아 권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 특성은 GCC 6개국은 매장량 기준 전 세계 석유의 43%, 가스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그레브 지역은 산유국인 리비아, 알제리를 제외하고 낙후되어 있다. 독립권역에서는 이란이 2016년부터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경제성장의 전망이 밝다.[5)]

5) 2016.1.16.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의 원유수출이 재개되고 내수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표 1〉 중동지역 권역별 특징

권 역	특 징
GCC (6개국)	■ 인구 5,200만 명, GDP 1조3,920억 달러(1인당 $28,666) ■ 걸프 산유국 연합(전세계 석유 40%, 가스 23% 매장) ■ 1조 8천억 달러 규모 국부펀드 운용(전세계 35%)
레반트 (4개국)	■ 인구 4,800만 명, GDP 2,670억 달러(1인당 $5,539) ■ 이라크 제외 자원보유 빈약 ■ 최근 정치불안 가중, 안정화까지 상당기간 소요 예상
마그레브 (4개국)	■ 인구 9,200만 명, GDP 3,280억 달러(1인당 $3,584) ■ 자원은 풍부하나(알제리, 리비아), 전반적으로 낙후 ■ 적극적 시장개방 정책(외자유치 및 민영화)
독립권역 (2개국)	■ 인구 1억6,800만 명, GDP 7,070억 달러(1인당 $4,199) ■ 제조업 발달 및 대형 내수시장 등 성장 잠재력 보유 ■ 이란(핵타결), 이집트(안정) 등 시장기회 다대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7 Oct), 주 : 2015년 IMF 통계자료 종합

다음으로 중동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위협이 공존하고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나, GCC 및 독립시장은 안정적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시장개방, 이집트는 정치안정 등으로 독립시장이 MENA(중동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우디와 이란 간의 종파 갈등 고조로 역내 정치적 불안과 시리아, 예멘, 리비아에서의 내전 장기화와 IS활동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어 이슬람종파 갈등, 내전 장기화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김화년, 2016). 최근 수년 간 중동지역은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수입수요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6)]

그러나 주요 산업분야의 꾸준한 투자 및 발전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석유 · 가스 분야에서는 저유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유 능력을 확대하고 석유화학단지 생산 증설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수요 상승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및 원자력 등을 활용한 복합발전 형태로 전환투자 하는 한편 노후화 시설에 대한 폐쇄, 개량, 개보수 등의 적극 추진하고 있다. 건설부문에서는 저유가로 인한 시장위축에도 불구하고 필수 프로젝트의 발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GCC에서는 부동산 개발, 교통 및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 두바이 엑스포 2020, 카타르 월드컵 2022 등 국가적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GCC 지역을 중심으로 철강, 알루미늄 제조, 이외 완제품 가공, 포장이 대부분이나 타 분야 제조업 육성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이집트, 이란 등 2대 독립시장에서는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있으나,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및 그 부품, 섬유·의류, 식품, 철강, 제약, 건축 자재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7)]

3.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를 위해 중동지역 진출에 대한 국내 학계에서의 선행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Google Scholar, DBPia, RISS, KCI 등의 국내 학술연구 Data Base를 사용하여 중동, 아랍, 무역, 투자, 건설, 플랜트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 후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연구는 39편으로, 분야별로 분류하면, 일반 7편, 문화 5편, 법률 2편, 무역 5편, 투자진출 7편 그리고 건설플랜트 수주 13편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중 17편의 주요 연구를 〈표 2〉로 정리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분야의 중동지역 진출에 대한 선행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우리 기업은 중동지역에 1970년 대 부터 진출을 하여 제1 중동 붐에 이어 2000년 대 중반부터 제2 중동 붐을 경험하면서, 중동지역이 지난 45년 간 우리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중동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걸프지역(GCC+이라크, 이란), 산유국, 이란, UAE, 이집트 등 중동지역 중 일부 지역·국가만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거나, 정부조달, 전력기자재, 이슬람 문화, 이슬람 법률 분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둘째, 아울러 이슬람 문화, 이슬람 법률, 무역, 건설플랜트 수주 등 여러 진출 분야 간의 종합적인 진출전략 분석과 제시가 절대 부족했다. 셋째, 연구 분석 대상 단위 기간도 대부분 10년 이내로 한정한 관계로 중동진출 전체 기간 40~50년의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45년의 역사를 상품수출, 건설플랜트 수주, 직접투자진출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표 2〉 중동지역 진출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저자(년도)	분야	제목
한바란 외(2012)	일반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주동주 외(2012)	일반	중동의 구조변화와 한·중동 산업협력전략
배윤주(2015)	문화	아랍 문화와 비즈니스 협상에 관한 연구
장건·김정명(2007)	문화	아랍 지역의 기업 조직과 비즈니스 문화 연구

7) KOTRA자료16-071(2017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7-509.

저자(년도)	분야	제목
이태무(1996)	문화	중동지역 무역관습에 관한 연구 -신용장 거래관습을 중심으로-
손태우(2013)	법률	중동 아랍시장 진입시 고려할 법적 사항에 관한 연구
정영철(2012)	법률	우리 기업의 중동 이슬람지역 진출에 따른 법적 위험 관리방안
안태건 · 김성룡(2017)	무역	한국과 중동 지역 간 상품교역 활성화를 위한 무역구조 연구
이일영 · 조희선(2015)	무역	아랍 지역 마케팅 환경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마케팅 사례를 통한 분석-
방정석(2004)	무역	중동 이슬람 지역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변영학(2013)	투자진출	“검은 골드러시”: 중동 해외직접투자의 정치경제
심의섭(1989)	투자진출	중소기업의 중동투자진출
장건(2011)	건설플랜트	해외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분석: 중동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심의섭(2007)	건설플랜트	중동 건설시장의 구조변화와 한국 건설 진출의 특징
한창연(1979)	건설플랜트	중동지역 해외건설진출에 관한 연구
Ling(1984)	일반	East Asian Migration to the Middle East Causes, Consequences and Considerations
Vogel(1991)	일반	The Four Little Dragons: The Spread of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주 : 연구자 정리

Ⅲ. 진출방식별 중동지역 진출동향 및 특성분석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별 시기 구분은 국내외 환경변화 특성과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표 3〉과 같이 상이하게 이루어졌다. 상품수출, 건설플랜트 수주 그리고 직접투자 진출은 시기구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3개 진출방식 간의 일관적인 시기 구분 기준이 없이 단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45년 간 중동지역 진출은 풍부한 에너지자원 수입을 활용한 지속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으로 타 지역과는 달리 상품수출과 더불어 건설플랜트 수주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건설플랜트를 주로 해외건설로 분류하여 해외건설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시기구분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8] 이는 우리나라 전체

건설 진출에 관한 시기구분이지 중동지역에 대한 시기구분은 아닐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제2 중동 붐에 대한 시기구분이 학문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970~2015년 간 10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하여 중동지역으로의 상품수출, 건설플랜트,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3개 진출형태의 시기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표 3〉 해외 진출 부문별 시대 구분(1962~2015)

상품수출		건설플랜트 수주		투자진출	
시기	특징	시기	특징	시기	특징
62~73	수출입국 기초	65~74	개척기	68~90	도입기
74~79	수출드라이브정책	75~83	중동붐 확장기 -성숙기	91~98	성장기
80~87	인프라구축 경쟁력확보	84~92	중동경기 퇴조 -침체기	99~04	조정기
88~97	세계화	93~97	도약기	05~15	활성화기
98~05	위기극복 재도약	98~03	외환위기 이후 조정기		
06~15	수출영토 확장	04~15	중동유가 상승 재도약기		

* 출처 : 시대구분 / 상품수출-한국무역협회 70년사 1966~2016, 건설플랜트 수주-국토해양부 2009. 11월, 해외건설진흥계획 연구, 투자진출-박영렬 외, (2011)

1. 상품수출

우리나라의 지난 45년(1970~2015년) 간 중동지역 상품 수출액은 3,70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수출액은 1970~1979년 3억 3천만 달러 대비 2010~2015년 313억 달러로 94배로 확대되었다〈표 4〉. 우리의 수출액을 중동지역의 수입액과 비교한 우리의 중동 수입시장 점유율은 1970~1979년 0.7%에 불과했으나, 1980~1989년 1.7%, 1990~1999년 2.3%, 2000~2009년 2.9%에서 2010~2015년 3.4%로 지난 45년 간 지속 증가 추세이다〈표 4〉. 이와 같이 우리의 중동지역 수출 증가 추세는 한국산 자동

8) 김진욱 · 강부성(2007)은 도입기(1965~1973), 성장기(1974~1985), 침체기(1986~1992), 재도약기(1993~현재)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외건설협회(2004)는 해외건설의 시기구분으로 개척기(1965~1974), 중동 붐에 따른 확장 및 성숙기(1975~1983), 중동경기퇴조 및 침체기(1984~1992), 아시아시장을 주 무대로 한 도약기(1993~1997), 외환위기 이후 조정기(1998~2003), 중동 유가상승으로 인한 플랜트 수주의 증가와 국내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등에 따른 재도약기(2004~2008)로 구분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9.11, 해외건설진흥계획연구).

차 수출 확대와 산유국으로 부터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수주에 따른 기자재 수출이 지속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5년 간 우리의 경쟁국가의 중동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중국이 1.0%에서 7.3%로, 인도 1.3%에서 3.6%로 증가한 반면 일본, 미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

〈표 4〉 한국의 중동시장 점유율 추이(1970~2015)

(단위 : 백만달러)

기간	70~79	80~89	90~99	00~09	10~15	70~15
한국의수출액(A)	3,327	22,162	38,665	117,861	188,206	370,222
중동의수입액(B)	460,186	1,267,190	1,670,045	4,011,153	5,594,809	13,003,385
한국의중동시장 점유율(A/B)	0.7%	1.7%	2.3%	2.9%	3.4%	2.8%

출처 : IMF DOTS 자료분석

1970~2015년 간 주요 국가로 부터 중동지역의 수입액은 미국 1조 1,751억 달러, 중국 9,493억 달러, 일본 7,417억 달러, 인도 4,744억 달러, 한국 3,702억 달러를 기록했다〈표 4, 5〉. 동기간 중동지역 총수입액 13조 달러 대비 주요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미국 9.0%, 중국 7.1%, 일본 5.6%, 인도 3.6%, 그리고 한국은 2.8%로 나타났다. 동기간 미국과 일본의 대 중동지역 연평균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시장 점유율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기간 중 연평균 수출액과 수입시장 점유율이 일본, 인도와 함께 증가하였다〈표 5〉.

〈표 5〉 중동의 주요 국가 수입액 추이(1979~2015)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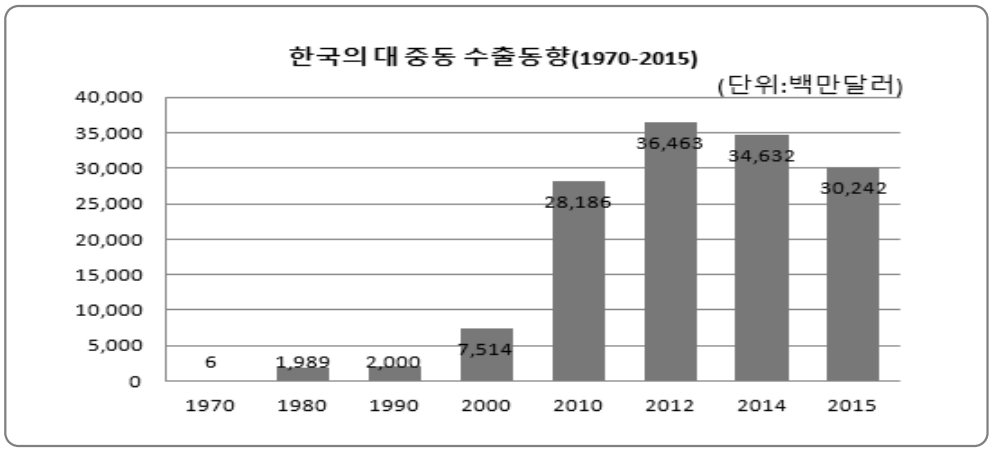
기간 / 수입국	70~79	80~89	90~99	00~09	10~15	70~15
중국	4,599	12,166	40,331	284,333	607,911	949,340
인도	6,166	11,234	29,794	160,925	266,340	474,459
일본	46,630	141,025	120,416	213,495	219,611	741,177
한국	3,327	22,162	38,665	117,861	188,206	370,221
미국	59,572	137,967	198,729	338,903	439,945	1,175,116
세계합계	460,186	1,267,120	1,670,045	4,011,153	5,594,809	13,003,313

출처 : IMF DOTS 자료분석

9) IMF DOTS 자료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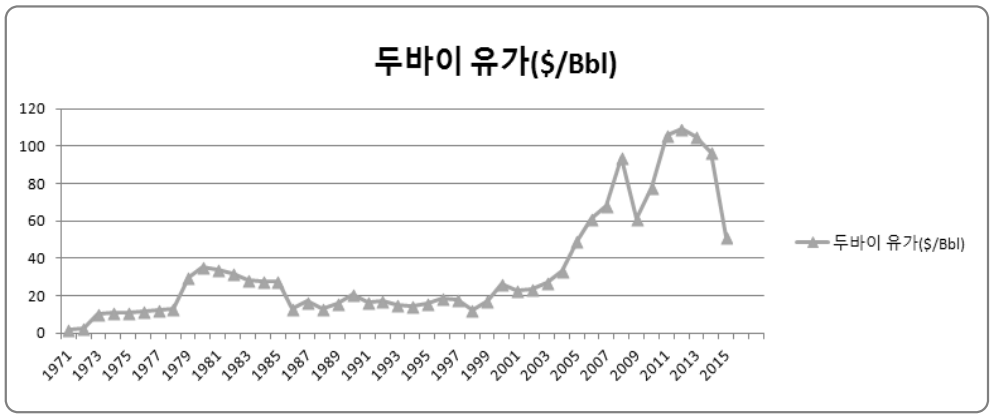
1970~2015년 간 한국의 중동지역 수출동향 〈그림 1〉을 10년 단위로 시작 년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660만 달러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 19억 달러, 1990년 2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 75억 달러, 2010년 281억 달러 이후 2012년 364억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5년 302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중동지역 산유국의 유가와 우리의 수출구조가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수주에 따른 기자재 수출의 특성으로 중동지역의 수입규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70~2015년 간 국제 유가와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그림 1〉 한국의 중동 수출(1970~2015)



출처 : IMF DOTS 자료분석

〈그림 2〉 두바이 유가(1970~2015)



출처 : 석유개발공사

주요 권역별로 구분하여 1970~2015년 기간 중 중동지역의 우리나라 수입액 추이를 보면, GCC 6개국과 독립권역 2개국의 수입액은 급증했으나, 1970~1979년, 2010~015년의 수입비중은 GCC가 72.3%에서 56.9%로, 독립권역도 21.6%에서 17.8%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마그레브와 레반트의 한국 상품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비중도 마그레브와 레반트가 동기간 급증하였다. 이는 우리의 수출이 GCC 이외 타 지역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표 6〉.

〈표 6〉 중동 권역별 한국 수입액 추이(1970~2015)

(단위 : 백만달러)

연 대	70~79	80~89	90~99	00~09	10~15	70~15
GCC(6)	2,406	14,765	22,308	62,846	107,128	209,453
마그레브(4)	25	2,091	4,053	12,445	19,339	37,953
레반트(4)	48	353	1,974	11,597	18,612	32,584
독립상권(2)	720	4,268	7,432	22,485	33,517	68,422
기타(2)	128	685	2,898	8,488	9,610	21,809
합 계	3,327	22,162	38,665	117,861	188,206	370,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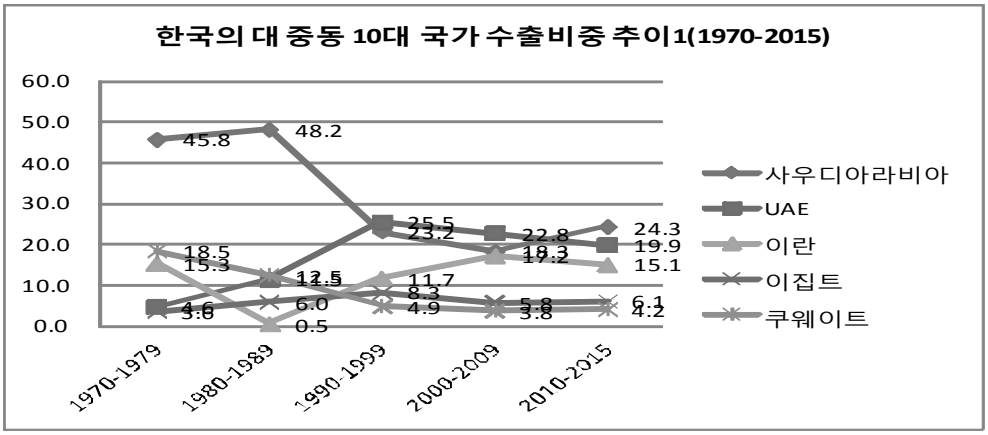
출처 : IMF DOTS 자료분석

1970~2015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대 중동지역 수출을 대상 국가별 수출비중〈그림 3, 4〉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23.7%, UAE 20.8%, 이란 14.7%, 이집트 6.2%, 쿠웨이트 4.8%로서 이들 상위 5개 국이 전체 수출의 7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개 국가는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석유수출국으로 대 중동 수출이 상위 10개국 중 산유국(사우디, UAE, 이란, 쿠웨이트, 알제리, 이라크)에 70.7% 집중되었다. 1970~1979년 대비 2010~2015년 기간의 수출비중 증가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면, 크게 증가한 1군 국가들로는 UAE,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 등이며, 크게 감소한 2군 국가들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며, 크게 변동이 없는 3군 국가는 이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출비중 증가율을 기준으로는 GCC와 북아프리카 산유국뿐만 아니라 마그레브의 리비아, 레반트의 요르단 그리고 독립권역의 이집트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0]

10)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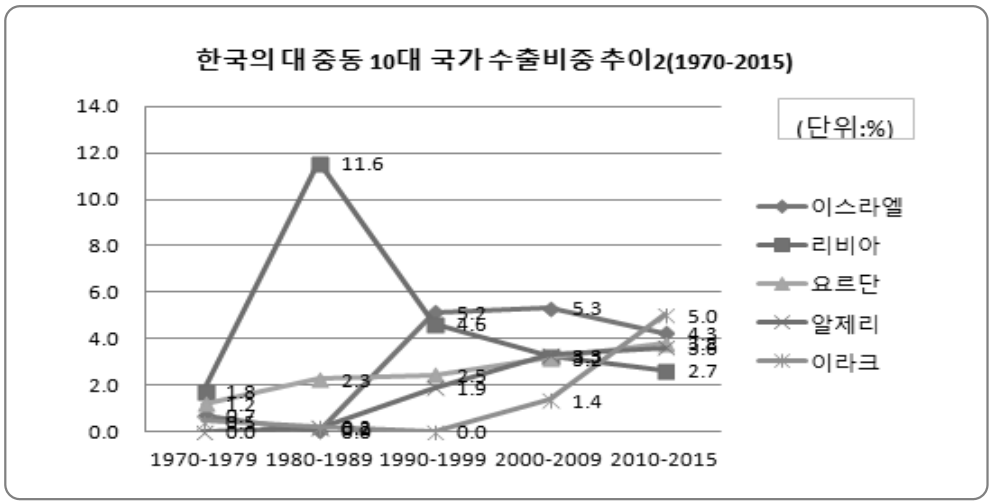
〈그림 3〉 중동 10대국 수출비중추이(1970~2015)

(단위 : %)



출처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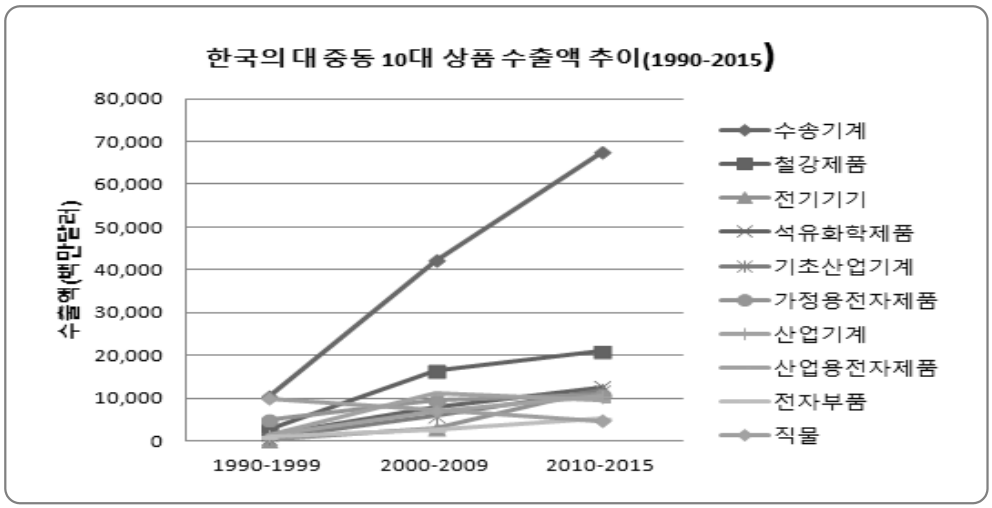
〈그림 4〉 중동 10대국 수출비중추이(1970~2015)



출처 : 한국무역협회

1990~2015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10대 수출상품은 수송기계, 철강제품, 전기기기, 석유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10대 수출상품 중 직물을 제외하고는 9개 품목 모두 1990~999년 대비 2010~2015년 연평균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5〉.

〈그림 5〉 한국의 대중동 10대 상품 수출액 추이(1990~2015)



출처 : 한국무역협회

〈표 7〉 년대별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상품수출 특성(1970~2015)

연 대	수출액 (백만달러)	시장 점유율	5대 수출국가	GCC 비중	5대 수출상품
70~79	3,327	0.7%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UAE, 이집트	72%	
80~89	22,162	1.7%	사우디, 쿠웨이트, 리비아, UAE, 이집트	66%	
90~99	38,665	2.3%	UAE, 사우디,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57%	수송기계, 직물, 가전제품,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00~09	117,861	2.9%	UAE, 사우디,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53%	수송기계, 철강제품, 산업용전자제품, 가전제품, 석유화학제품
10~15	188,206	3.4%	사우디, UAE,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56%	수송기계, 철강제품, 전기기기, 석유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70~15	370,221	2.8%	사우디, UAE,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56%	수송기계, 철강제품, 가전제품, 기초산업기계, 직물

출처 : IMF DOTS, Trade Map, 한국무역협회

이상 상품수출의 특징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1970년대 우리의 중동지역 시장 점유율은 0.7%에 불과하였으나, 제2 중동 붐을 맞은 2000년대에는 2.9%에 이어 2010년대에는 3.4%로 크게 높아 졌다. 5대 수출대상국은 1970년대에는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UAE, 이집트 순이었으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와 리비아 대수로 공사 본격화로 1980년대에는 이란이 제외되고 대신 리비아가 포함되었다. 1990년대, 2000년대에는 UAE가 중계무역 확대로 사우디를 제치고 중동지역 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사우디가 제1의 수출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권역별 GCC의 수출비중은 1970년대 72%에서 2010년대에는 56%로 하락했다. GCC 대신 리비아 등 마그레브 지역의 수출비중은 1970년대 0.8%에서 2010년대 10.3%로, 그리고 이라크 등 레반트 지역의 수출비중은 1970년대 1.4%에서 2010년대 9.9%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중동지역 5대 수출상품은 1990년대에는 수송기계, 직물, 가전제품,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직물이 제외되고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수송기계, 철강제품, 산업용전자제품, 가전제품, 석유화학제품으로 바뀌었다. 그 후 2010년대에는 전기기기와 기초산업기계가 포함되어 수송기계, 철강제품, 전기기기, 석유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순으로 5대 수출상품이 변경되었다.

2. 건설플랜트 수주

중동지역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은 1973년 삼환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건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윤종철 2007; 조수종 1982). 우리의 중동 건설 진출 역사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으로 제1차 중동 붐, 2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그 후 3단계는 2000년 이후부터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산유국들의 공사 발주물량이 증가로 한국 건설업계는 제2차 중동 붐을 맞이하였다. 전체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건설플랜트 수주의 특징은 유가에 따라 수주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의 중동지역 건설플랜트 수주액은 고유가 시기 대비 저유가 시기에는 급감하였다가, 유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급증하였다.

〈표 8〉 중동지역 권역별 건설플랜트 수주액, 비중 추이(1973~2015)

(단위 : 백만달러)

권역	구분	73~79	80~89	90~99	00~09	10~15	73~15
GCC	수주액	18,921	35,051	5,517	84,031	138,074	281,674
(6)	비중	92.3%	62.2%	29.2%	73.8%	75.2%	71.5%

권역	구분	73~79	80~89	90~99	00~09	10~15	73~15
마그레브 (4)	수주액	391	12,769	9,820	17,474	15,316	55,826
	비중	1.9%	22.7%	52.1%	15.4%	8.3%	14.2%
레반트 (4)	수주액	305	6,696	179	2,227	28,749	38,159
	비중	1.5%	11.9%	1.0%	2.0%	15.6%	9.7%
독립권역 (2)	수주액	728	1,201	3,347	10,084	1,584	16,945
	비중	3.5%	2.1%	17.7%	8.9%	0.9%	4.3%
기타 (2)	수주액	164	443	89	384	5	1,087
	비중	0.8%	0.8%	0.5%	0.3%	0.0%	0.3%
합계 (18)	수주액	20,510	56,160	18,954	114,201	183,730	393,55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해외건설협회 건설정보서비스 자료분석, 주 : 권역 ( )안은 국가수

중동지역의 권역별로 구분하여 우리기업의 진출동향을 보면, 1973~2015년 기간 중 진출 권역별 점유율은 GCC 71%, 마그레브 14%, 레반트 9%, 독립상권(이란, 이집트) 4%로 산유국을 중심으로 진출하였다〈표 8〉. 년대별 권역별 진출동향을 살펴보면, 고유가 시기의 GCC 권역 수주액은 급증하였으나, 마그레브, 레반트 권역별 수주액은 소규모로 증가하였다. 1973~2015년 기간 중 수주액 기준 5대 국가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이라크 순으로 나타나, 중동지역 수주액의 81%를 이들 석유수출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건설플랜트 진출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표 9〉 년대별 공종별 수주액, 비중 추이(1973~2015)

(단위 : 백만달러)

년대	구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통신	용역	합계
73~79	금액	6,261	10,074	2,851	1,317	116	20,620
	비중	30.4%	48.9%	13.8%	6.4%	0.6%	100.0%
80~89	금액	20,600	26,144	6,368	2,219	1,031	56,365
	비중	36.5%	46.4%	11.3%	3.9%	1.8%	100.0%
90~99	금액	8,410	2,072	7,369	1,090	15	18,960
	비중	44.4%	10.9%	38.9%	5.8%	0.1%	100.0%
00~09	금액	8,747	10,745	90,011	3,949	787	114,243
	비중	7.7%	9.4%	78.8%	3.5%	0.7%	100.0%

년대	구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통신	용역	합계
10~15	금액	18,483	15,567	142,622	4,899	1,732	183,304
	비중	10.1%	8.5%	77.8%	2.7%	0.9%	100.0%
73~15	금액	62,504	64,605	249,223	13,476	3,683	393,493
	비중	15.9%	16.4%	63.3%	3.4%	0.9%	100.0%

출처 : 해외건설협회 건설정보서비스 자료분석

공종별 수주추이〈표 9〉를 살펴보면, 제1 중동 붐 시기였던 1970년대에는 노동집약적인 토목(도로, 상수도, 항만, 단지조성, 철도 등) 및 건축부문(주택, 사무실, 학교, 병원, 호텔 등)에 총수주액의 78%가 집중되어 있으나, 제2 중동 붐의 시기인 2000년대에는 기술자본집약적인 산업설비(발전소, 원유시설, 화학공장, 가스처리 플랜트 등)의 비중이 총수주액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건설업체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기업은 토목과 건축부문을 중국 기업에 물려주고 대신 주력업종을 산업설비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변영학, 2013). 년대별 주력 공종의 변경동향을 기간 중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1 중동 붐 시기인 1973~1979년에는 건축(48%), 토목(30%), 1980~1989년 건축(46%), 토목(36%)이었으나, 저유가 시기인 1990~1999년 토목(44%), 산업설비(38%)로 산업설비가 주력 공종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제2 중동 붐의 시기인 2000~2009년에는 산업설비 비중이 78%, 2010~2015년 77%를 차지함으로서 주력공종이 토목·건축에서 산업설비로 완전히 바뀌었다.

〈표 10〉 년대별 발주형태별 수주액, 비중(1973~2015)

(단위 : 백만달러)

년대	도급공개		도급지명/수의		개발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73~79	3,102	15.1%	17,408	84.9%	0	0.0%	20,510	100.0%
80~89	13,728	24.4%	42,636	75.6%	0	0.0%	56,365	100.0%
90~99	1,716	9.1%	17,253	90.9%	0	0.0%	18,970	100.0%
00~09	44,946	39.2%	68,881	60.1%	701	0.6%	114,528	100.0%
10~15	111,646	60.7%	68,031	37.0%	4,259	2.3%	183,936	100.0%
73~15	175,140	44.4%	214,210	54.3%	4,960	1.3%	394,311	100.0%

출처 : 해외건설협회 건설정보서비스 자료분석

년대별 발주형태의 변경동향을 기간 중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1 중동 붐 시기인 1973~1979년에는 도급지명 · 수의 84%, 도급공개 15%, 1980~1989년 도급지명 · 수의 75%, 도급공개 24%에서 저유가 시기인 1990~1999년의 도급지명 · 수의 90%, 도급공개 9%로 도급공개의 비중이 최저로 낮아졌다〈표 10〉. 그러나 제2 중동 붐 시기인 2000~2009년에는 도급지명 · 수의 발주형태[11]의 수주가 60%로 감소하면서 도급공개의 비중이 39%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2015년 도급공개 수주 비중은 60% 크게 증가한 반면 도급지명 · 수의 비중은 37%로 낮아 졌다. 즉, 2000년대 이전에는 지명경쟁과 수의시담 발주방식,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공개경쟁 발주방식의 프로젝트 수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최근에 도급공개경쟁 발주방식의 프로젝트 수주의 증가로의 변화의 의미는 지명경쟁과 수의시담 방식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확보한 외교적 채널과 평상시 원만한 비공식적인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개경쟁체제로 들어섰기 때문에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기술적 경쟁력과 자금 확보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변영학, 2013). 우리나라 기업이 중동지역에서 수주하는 개발 발주방식의 프로젝트는 2000년 이전에는 전무하였으나, 2000년대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규모는 UAE에서 7억 달러, 2010년대에는 사우디에서 33억 달러, 이집트 9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개발 발주형태의 2010~2015년 프로젝트 수주비중도 2.3%로 증가하였다. 우리가 중동지역에서 수주하는 이들 개발형[12] 프로젝트의 공종은 산업설비(발전소, 일반공장), 토목(항만, 기타), 건축(주택, 사무실, 호텔)로 파악된다. 이러한 발주형태의 변화는 과거의 발주재원, 발주조건, 발주공종, 계약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발주조건은 가격경쟁 위주의 배타적이었던 것이 현재에는 비가격 복합경쟁형태(자국화시책 강화, 현지기업과의 합작 및 하도급 의무화 등)의 상호협의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장건, 2011).

〈표 11〉 년대별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건설플랜트 수주 특성(1973~2015)

년대	수주액 (백만달러)	GCC 비중	5대 수주국가	공종	도급경쟁 발주비중
73~79	20,510	92%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UAE, 리비아	건축, 토목	15%
80~89	56,160	62%	사우디, 리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건축, 토목	24%

11) 지명경쟁은 소수의 수주기업을 선정하여 입찰에서 경쟁시키는 발주방식을 말하며, 수의시담은 이미 결정된 계약업체가 공사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발주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개발형 발주방식은 시공자가 금융을 조달, 제공하는 방식이나, 시공 · 금융을 동반하는 수주형태를 의미한다.

년대	수주액 (백만달러)	GCC 비중	5대 수주국가	공종	도급경쟁 발주비중
90~99	18,954	29%	리비아, 사우디, 이란, UAE, 쿠웨이트	산업설비, 토목	9%
00~09	114,201	73%	UAE, 사우디, 쿠웨이트, 리비아, 카타르	산업설비	39%
10~15	183,730	75%	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산업설비	60%
73~15	393,557	71%	사우디, UAE, 쿠웨이트, 리비아, 이라크	산업설비, 건축, 토목	44%

출처 : 해외건설협회 통계자료 분석

이상 건설플랜트 수주 특성을 요약하면, 수주액은 제1 중동 붐의 시기인 1973~1979년 205억 달러를 시작으로 1980년대 561억 달러로 급증했으나, 저유가 시기인 1990년대에는 189억 달러로 급락하였다. 그러나 고유가로 제2 중동 붐을 맞은 2000년대에는 1,142억 달러에 이어 2010~2015년 1,837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권역별 GCC지역의 수주 비중은 1973~1979년 92%에서 1990년대에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으로 마그레브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9%로 급락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어 2010~2015년 75%로 GCC로 수주지역이 다시 편중되고 있다. 5대 수주 대상 국가는 1973년부터 1980년대, 2000년대, 2010~2015년 간 사우디가 지속 1위를 점유하였으나, 1990년대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로 리비아가 1위를 기록했다. 2000년대에는 사우디 대신 UAE가 대규모 인프라 건설로 1위로 부상했다. 공종별로는 제1 중동 붐 시기인 1973~1979년, 1980년대에는 저임금, 단순 기술이 투입되는 건축, 토목 분야 중심으로 수주되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건축, 토목 대신 기술력이 요구되는 정유공장, 발전소, 화학공장, 가스처리시설 등 산업설비 중심의 플랜트로 주력 공종이 바뀌었다. 발주형태별로는 도급경쟁 비중이 1973~1979년 15%에서 지속 증가하여 2010~2015년에는 60%에 달하였다. 도급 경쟁, 제한/수의 발주형태 이외에 개발형 발주방식 프로젝트는 2000년 이전에는 전무하였으나, 발전소, 공장, 항만, 사무실, 호텔 건설 등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액이 2000년도 7억 달러, 2010~2015년 42억 달러로 수주비중이 2.3%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11〉.

3. 해외직접투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기업들의 중동지역 직접투자 진출 45년 역사를

각 년대별로 권역별, 산업, 투자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196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직접투자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박영렬 외(2011)는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시대구분을 정부의 제반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단계에 따라 준비기(1968~1990), 성장기(1991~1998), 조정기(1999~2004), 활성화기(2005~2010)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동지역 직접투자 분석 시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45년 기간의 진출특성을 년대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동지역의 권역별 분류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품수출, 건설플랜트 수주 부문에서 사용하였던 GCC, 마그레브, 레반트, 독립상권,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중동지역(MENA)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2〉 년도별 중동지역 직접투자동향(196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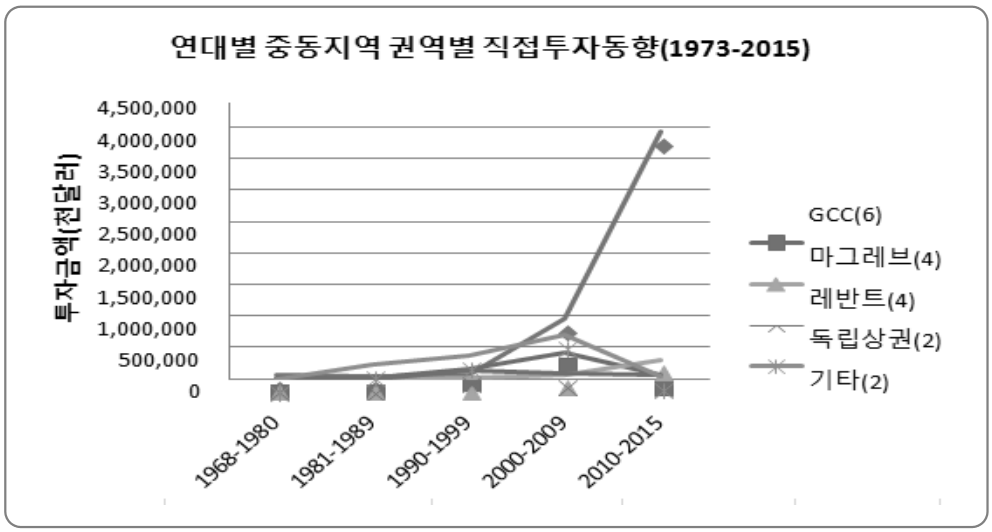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년도	투자액	건수	누적투자액
68~80	74,215	60	74,215
1981	3,642	21	77,857
1982	12,728	12	90,585
1983	2,987	10	93,572
1984	6,691	6	100,263
1985	10,300	4	110,563
1986	80,249	6	190,812
1987	70,908	5	261,720
1988	49,112	4	310,832
1989	39,650	10	350,482
1990	67,387	10	417,869
1991	78,252	14	496,121
1992	104,989	11	601,110
1993	114,636	17	715,746
1994	52,244	15	767,990
1995	52,490	16	820,480
1996	35,011	22	855,491
1997	130,972	23	986,463
1998	74,073	25	1,060,536
1999	18,387	22	1,078,923
2000	141,704	28	1,220,627
2001	39,922	19	1,260,549
2002	65,131	26	1,325,680
2003	53,722	24	1,379,402
2004	78,894	41	1,458,296
2005	214,304	55	1,672,600
2006	444,009	90	2,116,609
2007	454,792	152	2,571,401
2008	333,953	178	2,905,354
2009	410,033	184	3,315,387
2010	358,871	202	3,674,258
2011	515,028	211	4,189,286
2012	373,652	167	4,562,938
2013	403,884	164	4,966,822
2014	1,187,734	162	6,154,556
2015	1,563,218	164	7,717,774
합계	7,717,774	2,180	

출처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센터 통계자료분석

우리나라의 지난 45년 간 중동지역 직접투자는 1973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도로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계기로 건설업체의 진출로 이루어졌다. 1970~1980년대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시작된 우리 건설기업의 중동진출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플랜트 공사 수행, 지원을 위한 현지법인, 지점 설립으로 직접투자진출로 이어졌다(변영학, 2013). 특히 타 지역과는 달리 중동지역 대상 우리기업의 직접투자는 현지 진출 건설플랜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77년 외환은행의 바레인 지점 개설(4천만 달러 투자) 등 금융업 진출이 수반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예멘 중심 유전개발 참여로 자원개발 부문 직접투자가 확대되었다. 1968~2015년 간 중동지역 대상 우리의 직접투자금액은 77억 1천만 달러〈표 12〉로 동기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금액 3,176억 5천만 달러의 2.4%를 차지하였다. 년대별 중동지역의 투자비중은 1968~1980년 22.5%에서 1980년대 13.1%, 1990년대 2.6%, 1990년대 2.0%로 낮아 졌으나, 2010년대에는 2.5%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2개년도 우리나라 전체지역의 해외직접투자 대비 중동지역 직접투자진출 비중은 2014년 4.2%, 2015년 5.1%로 크게 증가하였다. 현지시장진출, 수출촉진, 저임활용, 자원개발을 위한 제조업의 중동지역 직접투자진출은 1968~2015년 간 216건 7억 5천만 달러로 9.4%에 불과하여 북미, 아시아 등 타 지역의 현지생산거점 구축, 저임금활용 투자진출은 활발하지 않고, 건설플랜트, 자원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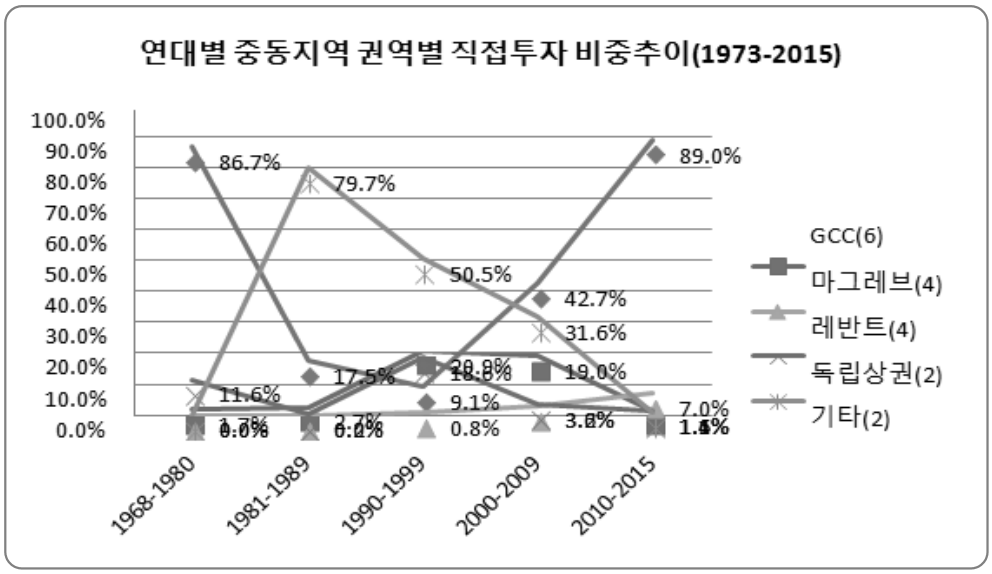
〈그림 6〉 중동 권역별 직접투자동향(1968~2015)



출처 : 수출입은행 FDI 자료 종합

중동지역 권역별 직접투자 진출동향을 투자금액 비중 기준으로 살펴보면, 1968~2015년 간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으로 구성된 GCC 64%, 예멘 등 2개국으로 구성된 기타지역 17%, 리비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마그레브 8%, 이라크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레반트 5%, 이란, 이집트 등 독립권역 3%로 중동지역 직접투자진출은 GCC 산유국과 예멘에 집중되었다. GCC에 대한 투자진출은 건설업, 금융업, 도 · 소매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예멘에 대한 직접투자진출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유전개발 투자에 기인된다〈그림 6, 7〉.

〈그림 7〉 중동 권역별 FDI 비중추이(1968~2015)



출처 : 수출입은행 FDI 자료 종합

산업별[13]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직접투자 진출의 특성을 각 년대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진출초기 제1 중동 붐 시기인 1970년대에는 3차, 2차 산업의 비중이 각각 62%, 35%로 서비스업, 건설업 · 제조업에서 1980년대에는 1차, 2차 산업의 비중이 각각 80%, 15%로 광업, 건설업 ·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진출 산업이 변화하였다〈표 13〉. 그 후 1981~1989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1차 산업 비중은 80%에서 17%로 지속 감소한 반면, 3차, 2차 산업 비중은 각각 4%, 15%에서 11%, 70%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3차 서비스 산업비중이 높은 것은 1977년 바레인에 한

13) 클라크(Clark, C.G)에 의한 분류 : 1차 산업(광업, 농업/임업 및 어업), 2차 산업(제조업, 건설업), 3차 산업(그 외).

국외환은행의 지점개설과 종합상사의 진출에 기인되며, 1970년대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제1 중동 붐을 계기로 우리의 기업들의 건설업 진출확대에 기인된다. 1980년대에는 석유 파동과 건설기업의 진출확대로 광업,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 졌다. 저유가 시대인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1차 산업 비중이 79%에서 54%로 감소한 반면 2차, 3차 산업의 비중은 10%, 20%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1차 산업의 진출비중이 17%로 급감하는 대신 건설업·제조업 등 2차 산업 진출비중이 70%로 크게 변화하였다.

〈표 13〉 산업별 중동지역 직접투자 진출동향(1968~2015)

(단위 : 백만달러)

연 대	구 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합계
68~80	금액	1	27	46	74
	비중	1.5%	35.7%	62.7%	100.0%
81~89	금액	221	42	13	276
	비중	80.2%	15.0%	4.8%	100.0%
90~99	금액	512	90	125	728
	비중	70.4%	12.4%	17.2%	100.0%
00~09	금액	1,219	474	543	2,236
	비중	54.5%	21.2%	24.3%	100.0%
10~15	금액	768	3,123	511	4,402
	비중	17.5%	70.9%	11.6%	100.0%
68~15	금액	2,722	3,755	1,240	7,717
	비중	35.3%	48.6%	16.1%	100.0%

출처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센터 자료 분석

투자목적별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1 중동 붐 시기인 1970년대에는 금융진출(기타) 53%, 자원개발 33%를 차지한 이후, 자원개발 비중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91%에서 18%로 지속 감소하였다〈표 14〉. 반면 현지시장진출형[14] 직접투자[15]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는 1% 미만에

14) 현지시장진출은 현지시장에서 생산,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

15) 해외직접투자는 대개도국 투자에서 수출유발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지산업의 미발달로 해외생산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 등의 본국 조달비중이 높은데 기인된다(김영래, 1999, 11).

머물렀으나, 2000년대부터 18%, 2010년대 66%로 높아져 투자목적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수출촉진 직접투자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진출이 전무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11%, 2000년대 9%, 2010년대 3%로 감소하였다. 1968~2015년 간 투자목적별 직접투자 평균비중은 현지시장진출이 43%로 가장 많고, 자원개발 38%, 그리고 수출촉진[16]이 5.9%, 제3국 진출 3%, 금융진출 1% 순이었다. 석유 등 광물 자원개발은 1970년대부터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 오만 등을 대상으로 직접투자진출이 이루어져 왔다.

〈표 14〉 년대별 중동지역 투자목적 직접투자동향(1968~2015)

(단위 : 천달러)

년대	구분	현지시장 진출	자원개발	수출 촉진	제3국 진출	기타	합계
68~80	금액	141	24,666			49,408	74,215
	비중	0.2%	33.2%			66.6%	100.0%
81~89	금액	2,373	252,847			21,047	276,267
	비중		91.5%			7.6%	100.0%
90~99	금액	2,592	512,342	81,153		132,354	728,441
	비중	0.4%	70.3%	11.1%		18.2%	100.0%
00~09	금액	411,805	1,316,460	204,141	39,827	264,231	2,236,464
	비중	18.4%	58.9%	9.1%	1.8%	11.8%	100.0%
10~15	금액	2,939,431	823,318	166,637	250,126	222,875	4,402,387
	비중	66.8%	18.7%	3.8%	5.7%	5.1%	100.0%
68~15	금액	3,356,342	2,929,633	451,931	289,953	689,915	7,717,774
	비중	43.5%	38.0%	5.9%	3.8%	8.9%	100.0%

출처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센터 자료분석

이상 중동지역 직접투자의 진출역사를 요약하면, 직접투자규모는 1968~1980년 7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예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개발 붐에 힘입어 1990년대 7억 달러, 2000년대에는 2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표 15〉. 그 후 2010~2015년에는 건설업, 제조업의 진출에 힘입어 44억 달러의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별 중동지역 직접투자는 제1 중동 붐의 시기 이면서 진출초기인 1968~1980년에는 건설플랜트

16) 수출촉진은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

진출기업과 이들의 현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업 등 2차 산업과 금융업 등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1990년대, 2000년대에는 석유개발, 광업 등 1차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2010~2015년에는 건설업, 제조업 등 2차 산업으로 투자 진출 대상 산업이 바뀌었다. 투자목적 측면에서는 1981~1989년, 1990년대, 2000년대의 예멘 중심의 자원개발 투자진출이었으나, 2010~2015년대에는 건설업, 제조업 중심의 현지시장진출형 투자진출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직접투자 대상 권역은 1968~1980년 GCC, 1980년대, 1990년대에는 기타지역(예멘)이었으나, 2000년대, 2010년대에는 다시 산유국 지역인 GCC로 돌아 왔다.

〈표 15〉 년대별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해외직접투자 특성(1968~2015)

년대	투자액 (백만달러)	권역	산업	투자목적
68~80	74	GCC	3차	기타
81~89	276	기타	1차	자원개발
90~99	728	기타	1차	자원개발
00~09	2,236	GCC	1차	자원개발
10~15	4,402	GCC	2차	현지시장진출
68~15	7,717	GCC	2차	현지시장진출

주 : 권역의 기타는 예멘, 투자목적의 기타는 금융업을 포함

Ⅳ. 결 론

본 연구는 우리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역사를 45년 간 상품수출, 건설플랜트 수주 그리고 직접투자의 종합적 관점에서 년대별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의 중동지역 상품수출은 첫째, 금액과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1970년 이후 매 10년 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1970년대 0.7%에 불과하였으나, 자동차와 건설플랜트 기자재의 수출 호조로 2010년대에는 3.4%로 급증하였다. 둘째, 권역별 수출은 지역적으로는 산유국으로 구성된 GCC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었으나, GCC 지역으로의 수출비중이 GCC 이외 지역의 수입수요 확대로 1970년대 72%에서 2010년대 56%로 낮아지면서 레반트, 마그레브 지역으로 수출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셋째, 주력 수출상품은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철강제품 중심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중국 등과 노동집약 제품의 경쟁력 약화와 우리기업

의 해외생산 확대로 직물, 가전제품의 수출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다음으로 건설플랜트 수주는 첫째, 수주액이 1970~1980년대의 제1 중동 붐과 2000년대의 제2 중동 붐의 년대별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저유가 시대인 1990년대의 건설플랜트 수주액은 189억 달러로 1980년대 561억 달러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중동 산유국의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발주량이 유가의 등락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데 기인된다. 둘째, 권역별 수주동향은 산유국으로 구성된 GCC 지역의 비중이 1970년대 92%에서 2010년대 75%로 낮아져 수주지역도 GCC 이외의 마그레브, 레반트 지역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셋째, 건설플랜트 수주 공종은 제1 중동 건설 붐의 1970~1980년대 단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건축, 토목 중심에서 제2 중동 붐의 2000년대부터는 고부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발전소, 석유화학시설 등 산업설비 중심으로 변화가 있었다.

직접투자 부문에서 1970~2000년대 중 투자목적은 예멘, 리비아, 이라크, 사우디 등에 자원개발과 산유국 중심으로 건설업 진출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상품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영업망 구축 등 현지시장진출형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제조업 기반조성 부족 등 경제 특성으로 우리의 중동지역 제조업 직접투자진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상품수출, 건설플랜트 수주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수출과 건설플랜트 수주 추이는 1990년대 저유가 시대를 제외하고는 고유가 시기에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8, 9〉. 따라서 우리의 중동지역 상품수출은 건설플랜트 수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지역에서 우리기업의 발전소, 석유화학공장, 건물, 항만, 공항 등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공사 수행을 통해 기계류, 부품, 산업용전자제품, 전기기기, 건설기자재 등 건설플랜트 관련 제품, 기자재의 수출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품수출과 건설플랜트 수주 지역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GCC 산유국 중심의 수출과 건설 수주 비중이 1970년대에는 각각 72%, 92%로 높았으나, 2010~2015년에는 56%, 75%로 크게 낮아 졌다. GCC 대신 리비아 등 마그레브, 이라크 등 레반트, 이란, 이집트 등 독립상권 지역으로 수출가 건설수주가 다변화되고 있다. 반면 직접투자는 건설업 진출확대로 GCC 산유국 진출비중이 1990년대 9%에서 2010년대 89%로 커지고 있다. 한편 2016년 1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건설플랜트 수주는 상품수출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표 16, 그림 8, 9〉.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여 공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과 지점의 운영이 필요하

다. 중동지역은 1973~2015년 간 우리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플랜트 수주로 우리의 직접투자진출도 활발하게 된다. 이에 직접투자는 건설플랜트 수주가 활발한 GCC 산유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건설플랜트 발주 방식이 기존의 도급경쟁, 도급지명/수의 방식에서 투자개발형으로 변경되는 추세이고, 발전소, 공장, 항만, 사무실 건설 등 우리기업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도 증가하여 직접투자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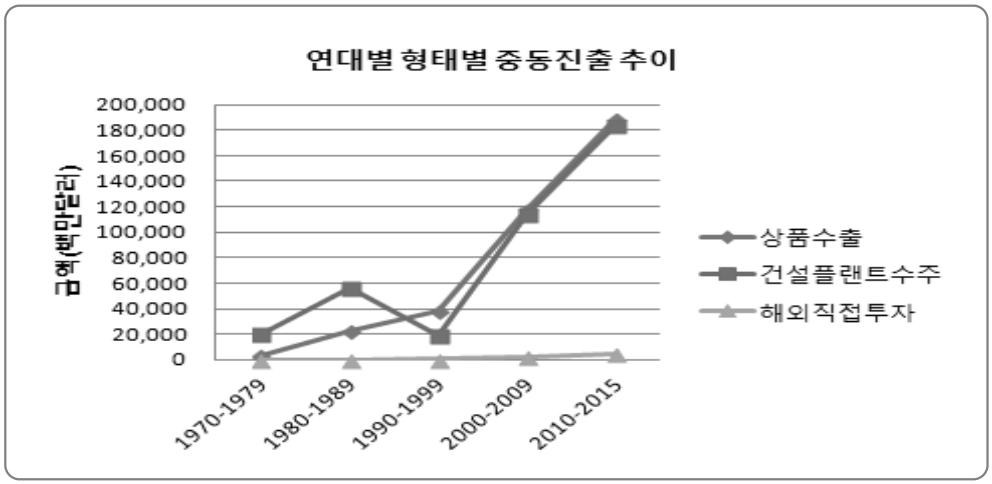
〈표 16〉 한국기업 형태별 중동진출 동향 종합(1970~2015)

(단위 : 백만달러)

연 대	상품수출	건설플랜트수주	해외직접투자
70~79	3,327	20,510	74
80~89	22,162	56,160	276
90~99	38,665	18,954	728
00~09	117,861	114,201	2,236
10~15	188,206	183,730	4,402
70~15	370,221	393,557	7,717

출처 : IMF DOTS,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8〉 형태별 중동진출추이(1970~2015)



출처 :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그림 9〉 중동지역 직접투자추이(1970~2015)

출처 : 수출입은행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중동지역에 대한 상품수출, 건설플랜트 수주 그리고 직접투자의 45년 간 진출 역사를 년대별로 종합적 관점에서 거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데 경영사적 의미가 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45년 간 중동진출 역사분석은 향후 우리기업의 중동진출 확대와 정부의 진출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중동연구에 종합적인 분석 관점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자료로는 실제 수출과 건설플랜트 수주 동향을 자세히 분석하는 데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최근 중동지역에 한류확산으로 드라마, 화장품 등 소비재와 연구용 원자로, 병원운영시스템(HIS) 등 첨단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원전건설 프로젝트 수주 등의 동향은 거시적인 자료로 파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거시적인 통계분석 연구의 한계로 시기별 국내 및 중동의 세부적인 환경분석과 대표적 기업의 진출전략, 활동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으며, 각 부문의 년대별 진출동향의 변화에 미치는 심층적인 전략, 요인과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 연구는 향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수출, 건설플랜트 수주, 그리고 직접투자 대상 지역이 산유국 중심 GCC에서 북아프리카의 마그레브, 레반트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중동지역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 중동지역 진출기업은 진출동향에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여, 특히 중동지역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우리와

는 이질적 문화권이므로 문화교류와 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 문화적 거리가 먼 중동지역에는 직접투자 보다 위험과 통제력이 낮은 수출과 건설플랜트 수주의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진적 해외진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태구(2003), 「글로벌기업경영론」, 무역경영사.

강호상 · 성용모(2000),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방식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29(1), 271-289.

국토해양부(연구기관 : 해외건설협회)(2009), 「해외건설 진흥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2009-06.

김영래(1999),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30년과 대중국 투자 10년의 특징,” 「경영사학」, 14(3), 5-29.

김중관(2015), “해외지역연구의 현황 및 발전 방향성 분석 : 실학적 관점의 중동학,” 「사회과학연구」, 22(4), 387-400.

김진욱 · 강부성(2007),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시장 진출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23(1), 189-196.

김화년(2016),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6), 441-4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 「2017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KOTRA 자료 16-071, 507-509.

문정인 · 이광열 · 고아름 · 김현규 · 김진영(2011), 「최근 MENA 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자료 11-62.

박영렬 · 곽주영 · 양영수(2011), “한국기업 해외직접투자 역사와 전략,” 「경영사학」, 26(3), 73-99.

방정석(2004), “중동 이슬람 지역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배도순(199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결정에 관한 연구,” 「산경논총」, 16(0), 1-40.

배윤주(2015), “아랍 문화와 비즈니스 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변영학(2013), “검은 골드러시 : 중동 해외직접투자의 정치경제,” 「동북아연구」, 18(1), 125-152.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2016 에너지통계연보」, 1-377.

서재만(1982), “한국과 중동,” 「국제정치논총」, 22, 123-136.

손태우(2013), “중동 아랍시장 진입시 고려할 법적 사항에 관한 연구,”「한국중동학회논총」, 33(3), 243-266.
심의섭(1989), “중소기업의 중동투자진출,”「한국중동학회논총」, 10(1), 31-56.
심의섭(2007), “중동 건설시장의 구조변화와 한국 건설 진출의 특징,”「한국중동학회논총」, 23(1), 195-216.
안태건 · 김성룡(2017), “한국과 중동지역 간 상품교역 활성화를 위한 무역구조 연구,”「통상정보연구」, 19(2), 47-64.
양영수 · 박영렬 · 이재은(2017), “한국기업의 중국 동북 3선 진출 역사와 시사점,”「경영사학」, 32(4), 61-91.
윤종철(2007), “해외건설산업의 성장과정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경영사학」, 22(1), 157-186.
이응석(2018), “진출국 제도와 해외직접투자 선택에 관한 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Business」, 9(1), 107-121.
이장우 · 최명신 · 사무엘츄(2002), “벤처기업의 국제화: 해외시장 진입 전략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1(4), 1135-1162.
이준호(2005),「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 전략 및 정책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5-21, 1-152.
이일영 · 조희선(2015), “아랍 지역 마케팅 환경 및 전략에 관한 연구-마케팅 사례를 통한 분석,”「한국이슬람학회논총」, 26(2), 166-192.
이태무(1996), “중동지역 무역관습에 관한 연구-신용장 거래관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임희정(2015),「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해외투자의 국내 유턴 유인책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15(08).
장건 (2011). “해외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분석: 중동건설 분야를 중심으로,”「중동연구」, 30(2), 178-204.
장건 · 김정명(2007), “아랍 지역의 기업 조직과 비즈니스 문화 연구,”「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2), 1-41.
정영철 (2012). “우리 기업의 중동 이슬람지역 진출에 따른 법적 위험 관리방안,”「한국중동학회논총」, 32(3), 73-112.
조수종(1982), “대중동건설진출환경과 경쟁력 요인,”「한국중동학회논총」, 2(1), 24-45.
주동주 · 서정민 · 박철영 · 윤정현 · 방현지 · 강지현(2012),「중동의 구조변화와 한 · 중동 산업협력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2012-624.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혜린 · 이시우(2012),「중동지역 정세변화

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24.
한병섭(2013), "CAGE 거리 차원을 통한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영리뷰」, 17(2), 59-88.
한창연(1979), "중동지역 해외건설진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홍성민(1991), 「중동경제론」, 명지출판사.
홍준표 · 조규림 · 천용찬(2016), 「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한국경제파급영향」,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16(1).

Anderson, E and Gatgnon, H.(1986), "Modes of foreign market entry: A transaction cost analysis and proposi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7(3), 1-26.
Benito, G. R. & Griprud, G.(1992), "The Expans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Discrete Rational Location Choices or a Cultural Learning Proces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3(3), 461-476.
Child, J.(1972), "Organizational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Sociology,* 6(1), 1-22.
Davidson, W. H.(1983), "Market Similarity and Market Selection;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1(4), 439-456.
Delios, A. & W. J. Henisz(2003), "Political Hazards, experience, and sequential entry strategies: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Japanese firms 1980~1998,"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1), 1153-1164.
Erramilli, M. K.(1991), "The Experience Factor in Foreign Market Entry Behavior of Service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2(3), 479-501.
Ghemawat, P.(2001), "Distance Still Matters," *Harvard Business Review,* 79(8), 137-147.
Ginsberg, A., & N. Venkatraman(1985), "Contingency perspectives of organizational strategy: A critical review of the empirical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3), 421-434.
Hofstede, G.(2005),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The McGraw-Hill Companies.
Johanson, J. E. and Wiedersheim-Paul(1975),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Four Swedish Cases," *Th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53-77.

Ling, H. M.(1984), "East Asian Migration to the Middle East Causes, Consequences and Consideration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8(1), 19-36.

Mudambi, R. & P. Navarra(2002),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business: a theoretical overview,"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1(6), 635-646.

North, D.(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rter, M. E.(1980), *Competitive strategy: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ion,* New York: Free Press.

Root, F. R.(1987), *Entry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Markets,* Lexington Books.

Temporal, P.(2011), *Islamic Branding and Marketing: Creating A Global Islamic Business,* Singapore, John Wiley & Sons (Asia).

Vogel. E. F.(1991), *The Four Little Dragons: The Spread of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Harvard University Press.

Zajac, E. J., M. S. Kraatz, & R. K. Bresser(2000). "Modeling the dynamics of strategic fit: A mormative approach to strategic chang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4), 429-453.

Zhao, H., Luo Y. & Suh, T.(2004), "Transaction Cost Determinants and Ownership-based Entry Mode Choi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5(6), 524-554.

(웹사이트)

석유개발공사(2018), http://www.petronet.co.kr/

한국무역협회(2018), http://stat.kita.net/

한국수출입은행(2018), http://keri.koreaexim.go.kr/

해외건설협회(2018), http://www.icak.or.kr/

IMF DOTS(2018), http://data.imf.org/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 http://www.imf.org/en/publications/weo

Trade Map(2018), http://www.trademap.org/

The Study of Historical Analysis for Korean Companies' Advances to Middle East Region

Hyung-Wook Kim* · Ji-Yeon Ya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y of the Korean companies' advance to the Middle East region over the past 45 years,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years in commodity export, construction and plant order and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fields by using macroscopic statistics with comprehensive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at Korean companies' participation in plant and construction projects was expanded as the oil producing countries increased the project orders in the 1970~80's and the 2000's with the high oil price. Korean companies' export of commodities and participation in construction and plant projects in the Middle East are having the same upward trend with consistency in high oil price era, except for the 1990's with the low oil price. Korea's participation in construction and plant projects is the foundation that leads to its increase in commodity exports of related equipment. Moreover, order of construction and plant by Korean companies in the Middle East is not only related to the commodity exports, but also affecting on the entry of direct investment. Particularly, the direct investment of Korean companies has increased since 2000's as a form of order for construction and plant is expanded to the investment development type from the former contract system. Meanwhile, direct investment on local market for establishing local networks that expands product exports has also been active prosperously since the 2000's.

〈Key Words〉 Middle East, Islam, Export, Construction and Plant, FDI.

* Ph D. Candidate, aSSIST(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 Director General, Project Support Department,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Suwon.